



“지금 젊은 죽은 땅이야. 좋은 고질병이 들었어. 새 땅에 새 인재를 길러야 해.”

20세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미 정진의 힘을 얻어 효봉, 구산, 인곡, 창달, 성철 스님 등 당대의 장성한 선지식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대표적인 수좌. 세수 80의 노구에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예불 및 참선하는 일과를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경남 함양의 해동선원 조실 성수(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이 최근 경남 신형 5천여평의 폐교에 전문 선도당을 열고 ‘근성있는 새끼 사자’ 양성에 나섰다.

8년전 함양 황석산 아래 시민선원을 개원, 인재물사의 원력을 직접 실천해 온 성수 스님은 경남 신형군 금서면 평촌리 매촌초등학교를 인수, 17일 오전 10시 원효대사상(像) 점안식을 갖고 ‘해동선원(海東禪源)’을 개원한다. 시골 폐교가 선원으로 탈바꿈 한 것은 금강선원(주지혜거스님)이 2000년 7월 강원도 홍천에 시민선원 ‘선문장’을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 성수노스님, 폐교 인수 ‘해동선원’ 설립

## 근성있는 새끼사자 키울것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합쳐 마무리 보수 및 개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동선원은 본관건물의 중앙 원형을 선방과 법당으로 꾸미고 나머지는 방사로 개조해 현재 10여명이 수행정진 중이다. 교실과 복도를 하나로 더 연결 넓어진 내부에는 폭신한 바닥재를 깔고 창문에는 커튼을 달았으며 벽도 칠을 하는 등 아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수 스님은 지난 1월경 인근의 다른 지역에 선원터를 찾아보러 방문했다가 이곳을 발견, 단번에 낙점하고 지난 3월부터 선원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화교 인수과정에서 성수 스님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람 만드는 공장을 하나 하겠다”고 하니, 교육청이나 인근주민들은



○폐교를 보수해 17일 개원하는 산청 해동선원은 성수 노스님의 인재양성원력으로 세워졌다. 사진은 17일 원효대사상이 모셔질 해동선원의 법당 모습.

한편 성수 스님이 주석하는 황대선원에는 해제침입에도 불구하고 91세의 반야행 보살을 비롯 평균연령 80세에 달하는 30여 재가자들이 정진하고 있다. 스님은 이와 관련 “요즘은 늙은 할머니 보살들이 내 스승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예불을 보려고 앉아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두고 괴롭 부릴수는 없지”라며 여럿이 모여 정진하는 대중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즘 선방이 많고 선객들이 많아도 정작 선이 무어나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성수 스님은 “성철 스님의 말씀을 잡고 가르침을 청한 일화를 들려 주며 불자 세 분 정도를 모셔서 본격적인 참선 공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 발전협의회, 대선후보들에게 건의서

경주를 국무총리 산하의 문화특별시로 지정하자는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화제다.

경주발전협의회(회장 황윤기)는 4일 성탄(性) 불국사 회주스님, 백승송 경주시장, 이진구 시의회 의장,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을 비롯해 시민 18명 등이 연대서명한 ‘경주 문화특별시 승격 건의서’를 각 정당 16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경주발전협의회는 건의서에서 “불국사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개 지구를 비롯 29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관광도시인 경주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도굴과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 부산불교자비원 19주년

미용사서 기념행사 열어

11월 6일, 영도 미용사 법당에서는 19년 동안 한결같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온 부산불교자비원(원장 정각스님)의 창립 19주년 기념행사가 조촐하게 열렸다.

1983년 창립된 부산불교자비원은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회장 장일천, 육바라밀회(회장 오수복), 육화산행회(회장 최순희)의 조직을 토대로 구치소 재소자 교화활동, 치매센터 봉사, 수재민돕기, 인도불가촉천민돕기, 북한통포품기, 조선족 연수 개최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 따뜻한 자비의 온기를 불어넣어왔다. 특히 부산불교자비원은 시민 운동의 대부분을 불려온 정각스님의 앞가리는 복지이념과 실천 정신을 고스란히 사회에 회향하는 심부름을 해왔다.

### 17일 원효대사상 점안과 함께 개원

다른 반대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순조롭게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인재가 많이 나는 형상의 풍수라 참선공부하는 선원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말하는 성수 스님은 “앞으로 의지있고 용기있는 선객들을 많이 받아 전문선방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람들이 이곳 선원을 찾아오기를 바란다

사람들을 모으려 개원식을 따로 갖지는 않을 계획이다.

스님은 또 “해동선원에 스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기상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참선수련을 지도해 줄 스님 세 분 정도를 모셔서 본격적인 참선 공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7일 옥룡사에서 도선국사법구 이운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주유직 광주시장

## 도선국사법구 다시 제자리 봉안

신라 도선국사의 법구(석관)가 발굴 6년 만에 다시 옥룡사지에 봉안됐다.

광양시는 도선국사와 제자 통진대사의 부도탑과 탐비를 복원, 7일 옥룡사에서 점안식을 가졌다. 옥룡사지는 도선국사가 입적할 때까지 35년동안 수도한 도량으로, 광양시가 주관해 발굴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행사는 도선국사 법구를 순천대박물관에서 옥룡사지로 이운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우리가락 한마당 잔치, 출토유물 전시회, 봉안제막식, 원광대 양은교(동양종교학과)의

## 동아대 발굴팀 영암사지 조사

### 통일신라 가람배치의 전형

합천 황매산 영암사지(사적 제131호)를 발굴한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관장 심봉근) 발굴팀은 10월 30일 ‘영암사지는 현재 사찰의 초석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등 통일신라시대의 완벽한 가람배치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사찰 변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굴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암사지는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조계종(8세기경)·천태종(11세기)사찰 6번도하면서 증개축을 거듭해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보다 3배 정도 더 큰 당시 전국 5대 사찰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또 금당지와 회랑지가 동서 대칭의 정방형인데 반해 이번에 발굴된 하단부의 건축물은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된 점도 확인했다. 박원구기자



○19일까지 경주아트선재미술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주최 ‘아름다움과 깨달음전’이 2일 개막했다. 사진 왼쪽부터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터스님,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

## ‘아름다움과 깨달음전’ 경주전시

불국사 협찬, 19일까지 아트선재미술관에서

천년 불교미술문화의 고취를 위하여 경주에서 근현대 작가들의 불교사상 작품전이 뜨거운 관심속에 19일까지 열리고 있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이 주최하고 불국사주지종상스님의 협찬으로 아트선재미술관에서 2일 개막한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전’이 그것.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터스님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백상경 경주시장, 김광삼 현대불교사장, 김영중 동국대부총장, 김무생 위덕대학원장, 김태중 경주문화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2일 개막식은 불국사 어머니 어린이 합창단의 은은한 찬불가 속에서 시작됐다.

## 광주·장흥교도소 재소자

선각종, 찬불가·독경 대회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6일 광주, 장흥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찬불가 및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진설(선각종 총무국장), 자공(천봉사), 진은(불설정사), 진력(송학사), 선주(천불암), 진화(수지암), 선정(지선암) 스님과 재가불자 50여명



○선각종은 6일 광주 교도소에서 재소자 찬불가와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 ‘선예술의 재조명’ 주제

14일 한중일 학술대회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속에 녹아있는 선사상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선예술의 재조명’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14일 부산일보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와 전



○김갑임 총무(가운데)와 용천사신도들이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지금정성으로 참회기도를 올립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벗고 매일 매순간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피나는 연습이 지요. 그러다보면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용천사 관음회 김갑임 총무(46세, 자비안, 하심)로부터 시작되는 참회야말로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김 총무는 20여년째 새벽기도를 올리고 있다.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라기 보다 기도를 통해 정당한 마음과 수행으로 삼아가기 위함이다.

## 새벽기도 20년...사중일 도맡아

### 서울 용천사 관음회 김갑임 총무

총무는 사중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에도 사중일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관음회 총무직을 맡으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사찰안내와 법당청소, 공양 준비 등 바쁜 하루를 보냈고, 법회가 없는 날에도 기도시간 외에는 공양간과 법당을 오가며 일거리를 찾았다.

현재 사중일에만 참여하고 있는 관음회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김 총무는 10여명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나누어 하려는 심월스님의 배려였다. 집에 오는 대부분의 시간을 법당에서 기도하며 보냈던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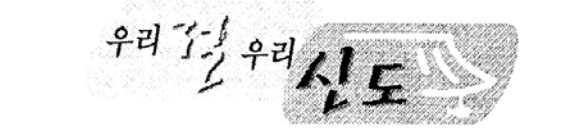
## 주님의말

### 심월스님 용천사 조실

우리 젊은 지장기도를 올리는데는 도량입니다. 신도중에 지금 한 정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만, 관음회 김갑임 총무 만만 신도를 아직 보지 못했어.

김 총무는 20년째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고 참석하는 열성 불자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친 김 총무에게 “무슨 기도들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과 제 주변의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참회기도를 올립니다.” 말은 쉽지만, 참 대단한 불자 아니겠어요? 김 총무 같이 이웃을 생각하고 바른 법으로 이끄는 불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찾아 미약한 힘이나 그들에게 보태면서 살아갈 거예요.” 박원구기자



## 군법당·장애어린이 후원 등 활동 확대

김 총무의 정성을 지켜본 조실 심월스님은 3년전 관음회 총무직을 권했다.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신행의 폭을 넓혀나가게 하려는 심월스님의 배려였다. 집에 오는 대부분의 시간을 법당에서 기도하며 보냈던 김